

무지개축제를 재미있게 즐기려면

다음 주일 5월 25일, 주님의교회 무지개축제가 정신여중고 운동장에서 열린다. 먼저 주일예배는 강당에서 1부 예배를 현재처럼 오전 7시 30분에 드리며, 이어서 2,3,4부 연합예배를 10시에 드린다. 2,3,4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예배실, 소예배실, 식당, 자모실 등에 LCD프로젝터를 설치하여 대예배실의 예배를 중계할 예정이다. 이 날 연합예배에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며, 연합찬양도 준비중이다.

영아부에서 소년부까지는 교회학교의 특수성으로 부서별 예배를 10시에

드리게 된다. 그러나 예배 후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축제에 참여하면 되고 부모와 함께 하지 않는 자녀들은 교회학교별로 안내를 받으면 된다.

예배 후에 바로 교회건물 주변과 운동장에서 이어지는 1부순서로 먹거리장터, 놀이마당, 축제마당에는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수고로 진행이 되는데 교우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바란다. 교구별로 식사장소가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의 해당 교구를 찾아가기 바라며, 먹거리장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놀이마당, 축제마당은 남녀노소가 공히 참여할 수 있으며 상품

도 푸짐하다.

2부순서로 무지개운동회가 운동장에서 열린다. 한마음팀과 한가족팀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흰색 상의와 적색상의로 나뉘어서 팀구분을 하게 되므로 자신이 속한 교구를 파악하여 자녀들과 함께 입고 오길 당부한다.

무지개운동회가 끝난 후 3부순서는 기독교TV의 '최인혁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개방송이 이어진다. 꼭 기억할 것은 다음 주일은 교내 차량 진입이 전면통제되므로 교회주변과 경기장주차장을 이용하여 주길 바란다. 단 장애교우 차량은 진입이 가능하다.

의료선교부

'국경을 넘은 미담'

『5월 2일 의료선교부에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멀리 중국에서 온 것이었다. 그 사연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님의교회 의료봉사단이 안산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중 암에 걸린 중국인 여성환자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주님의교회 사회선교부의 도움을 받아 고려대학교 부속 구로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했고, 그녀는 회복되어 중국 본토로 무사히 돌아갔다. 이 편지는 남편 장명민 씨가 그에 대한 감사차 보내온 것이다. 원본은 중국어로 쓰여져서 시온찬양대 하광엽 집사가 번역해 주었다.』

경애하는 최상용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선한 마음으로 저의 아내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희 아내는 지금의 병으로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 대한 감격 대은대덕한 것에 대해 저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 병의 상황이 더 중해진 상태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의 가족들은 매우 걱정했습니다. 저의 집은 보통가정이고 자녀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 외에는 아무 것도 없고, 친한 친구도 이렇게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 아내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중국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선생님의 형제 자매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치료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곳에서 매우 막막해 있을 때에 한국에서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도움을 주시는 분을 만나다니 이것도 하나의 연분인

가 됩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마음 속으로 선생님의 일생이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현재 저희 아내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가족들도 많이 안심하고 있으며, 이 일은 저희 동네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모두들 선생님은 큰 선인이라고 칭찬하고 있으며 선생님과 같은 분을 만난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은 선생님의 덕분입니다.

아! 선생님의 사랑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웃음도 잃고 아내의 생명도 끝났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같은 나라에 살지 않고 생활과 여러 가지 것들이 같지 않아도 우리들은 하나의 세계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선조들은 옛날 먼 곳으로부터 흘러들어와 서로 친밀한 사이였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이와 같은 자선 밖의 행함이 알려지게 되어 선생님과의 같은 분들이 이 사회에 공헌하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선생

님의 고상한 품격과 삶 등을 다른 이들이 모두 배웠으면 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가서 꼭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속담에 '물방울과 같은 은혜가 샘을 맑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저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필요로 한 곳에 힘을 다해 쓰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국경을 넘어 사람들이 모두 하나의 사랑을 바칠 때 세계는 더 아름답고 좋아지겠지요. 천계의 말, 만 마디의 말로도 선생님께 대한 감격과 은혜를 표할 수 없네요.

시간이 있으시면 중국에 놀러 오십시오. 제가 어디를 가시든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과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이 서신으로나마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장명민 올림-

고등부 학부모 간담회

학생, 교사, 부모가 하나되어

고등부에서 매년 연초에 갖던 학부모 간담회를 올해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5월 18일(오늘)에 갖기로 했다.

현재 고1 학생들은 겨울수련회와 찬양예배를 통해 점점 고등부 문화에 익숙해 가고 있다. 이들 부모들이 교사와 함께 자녀에 대한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이다.

또 자녀들로 많이 고민하며 기도하고

'교회건물 소독'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교회 관리부에서는 지난 5월 12일 교회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살균소독을 실시하였다.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교회 1층에서부터 5층의 강당, 식당, 사무실,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독을 끝마쳤다.

소독은 새한방역에서 맡아 무독성, 무공해, 살균소독, 악취 제거제인 BTC-A를 뿌렸으며, 미국 F.D.A와 U.S.D.A에서 공인된 약품이었다.

교회사무실 송국환 사무부장 집사의 감독하에 실시된 교회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이었다.

/ 정해춘 기자

계신 고2, 고3 부모들에게도 학업과 신앙의 조화에 관하여 교사와 상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앙훈련은 교회 예배만으로는 온전해지지 않는다. 교사와 부모가 한마음이 되어 격려하고 지도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회학교에서 또래집단에 참여하여 드리는 예배와 그 안에서의 여러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한다면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 믿음을 가진 부모님의 삶을 통해 더욱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되리라고 본다.

학부모들이 모두 참여하여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고등부 교사들을 만나 격려하고 대화 나눌 수 있기를 교사들은 바라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18일 오전 10시 40분, 5층 청년부실에서 열린다. 많은 학부모들의 참석을 기대한다.

/ 박해경 기자

터요람공동체

‘운영위원회 조직’

공동체 활동을 위해 ‘터요람’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공동체의 산파역을 맡았던 남장희 안수집사를 비롯하여 일터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고 터요람에 대해 공감하는 김용남, 박형기, 윤영범, 황용환 집사 등이 참여하여 지난 4월 29일(화) 오전 10시 교회의 당회원실에서 첫회의를 가졌다.

먼저 터요람공동체의 목적, 기능 및 설립과정에 대한 남장희 안수집사의 설명이 있었고, 이어 전반적인 논의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참여자가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할 것
- ▷ 계속적인 홍보활동 필요
- ▷ 방문자에 대한 안내절차 마련
- ▷ 내부규율 마련

▷ 위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터요람공동체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오전 시간에 상근하고 있는 남장희 집사가 마련하기로 하였다.

터요람의 운영을 도와줄 동역자와 공동체 참여자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하실 분은 남장희 안수집사(016-502-8287)에게 연락하면 된다.

아래의 글은 지난 교사세미나 시간에 발표되었던 담임목사의 주님의교회 비전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주님의교회 비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주님의교회는 정신학원에 강당을 건축하여 기부헌납한 후 교회의 예배와 모임, 그리고 사무와 관리를 위하여 강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어진 여건을 ‘우연’ 또는 ‘궁여지책’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주어진 바’(Gabe, 은혜)에서 우리의 소명과 ‘책임’(Aufgabe)을 발견할 수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강당은 교회와 사회의 중간지대입니다. 학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부담스럽지 않게 예배에 초청하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이며, 따라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주님의교회의 교인들의 많은 비율(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음)이 타교회에서 온 기존신자들입니다. 이렇게 형

성된 주님의교회가 이제부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새롭게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으며,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냉소적인 사람(cynic), 회의적인 사람(skeptic), 방관적인 사람(spectator), 무엇인가 찾는 사람(seeker), 그리고 새신자(new believer)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prevaling church)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사도적 교회’(Apostolic church),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교회’(Contagious church),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Church for the unchurched)라고도 불립니다.

아래의 그림은 냉소적인 사람, 회의적인 사람, 방관적인 사람, 무엇인가 찾는 사람, 새신자, 그리스도를 향한 진전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향한 진전이 약간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향한 진전이 많이 있는 사람

5층 도서실 개관

많은 도서기증이 있기를...

도서실 개관예배를 5월 18일(주일) 오후 1시에 5층 도서실에서 드릴 예정이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모집과 도서수집을 한다.

현재 도서실부에 속한 회원은 ‘좋은 책 읽기 모임’의 10여명 정도로 도서실 운영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해 도서실 설치와 자료모집, 분류 그리고 도서수집을 자원봉사자(3,4명)들이 맡아주기를 원한다.

모집대상은 5층 도서실 및 1층 bookcafe 봉사자이며, 봉사시간은 3일간으로 수요일 16:30~19:30, 토요일 14:00~17:30, 주일 09:00~15:00이다.

교회에 기증할 수 있는 도서 종류로는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사전류, 서적(성인, 중고등, 아동류), 일반 교양도서로 일정한 수준을 갖춘 책으로서 책 보관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추진되고 있는 계획은 6월말까지 도서실에 필요한 도서목록을 작성한 후에 수집된 도서를 본 후 도서를 구입할 예정이다. 도서목록에 대해서는 목사와 기독교 서적 전문가와 상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작하고 교회주보와 ‘함글함글’을 통해 계속해서 홍보하여 6월까지

교회 사무실

기부금증명서 발급

국세청에 따르면 2002년도분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자들은 5월 31일까지 작년에 올린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내는 세금이며 연도중에 올린 사업, 임대, 양도, 금융소득에 대하여 금액에 따라 9~36%의 세율을 적용납부한다. 납세 대상자들이 이달말까지 신고, 납세하지 않으면 20%이상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신고요령과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 참고하기 바란다.

우리 교회에서도 해당자중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교회 안내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면 되고, 평일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5월 31일까지 신청분이다.

도서수집 및 구입을 마치고 7월 1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관, 운영하려 한다. 교우들의 참여와 기증을 기다린다.

봉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도서부팀장인 하화주 집사(016-9224-5291)에게 연락바라며, 기증은 주일에 5층 도서실로 가지고 오면 된다. 교회 도서실이 믿음의 지식과 지혜의 온상이 되기를 바란다.

/ 정해춘 기자

테니스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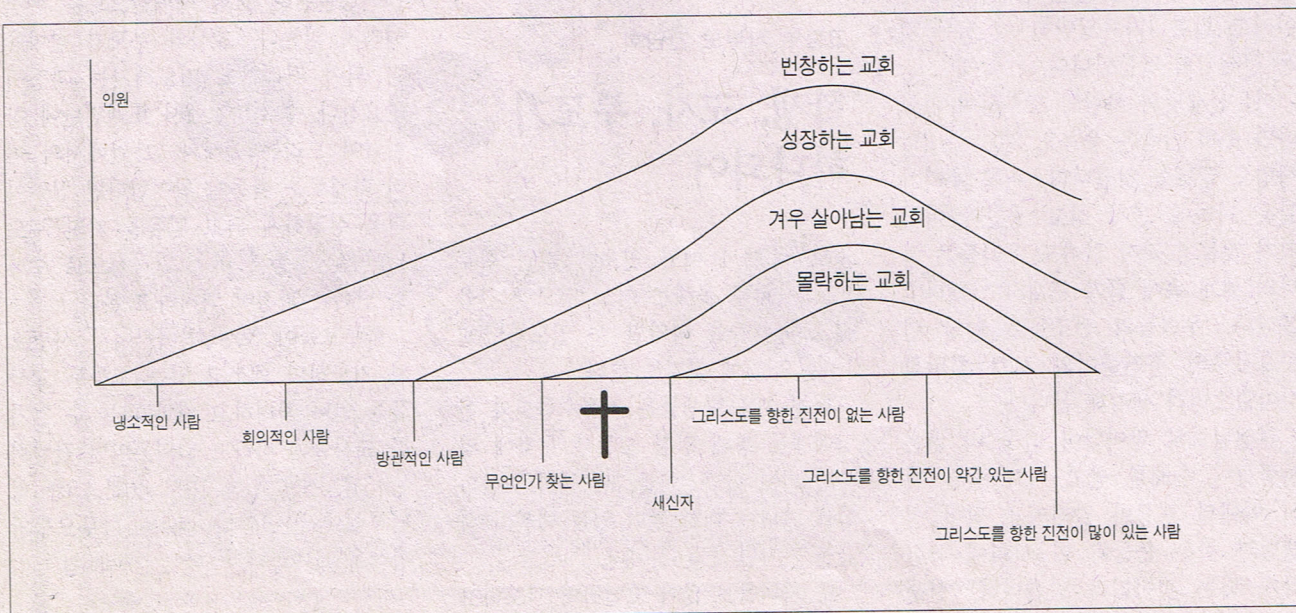
주일예배 후 경기 가져

약 6~7년전에 현교회 건물 자리에 테니스코트가 6면 있었다. 그 당시 예배드린 후 오후에 모여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부정기적으로 몇 명이 이곳저곳으로 치러다니다가 2년전부터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클럽이 되었다.

첫째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오주중학교(오금동 소재), 셋째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배제고등학교(고덕동 소재)에서 경기를 가진다.

주님의교회 교인이면 남·여·노·소 관계없이 잘치든 못치든 함께 게임을 한다. 회비는 없고 게임이 끝나면 저녁식사 친교 후 마무리한다.

현재 회원은 10여명이며, 신정용 집사(011-236-0661)에게 문의하면 함께 할 수 있다.



무지개축제 외국인근로자 초청

먼저 웃어주고 ‘친절’을

우리 모두가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주어 소외로 인해 닫혀있는 마음들이 열려 고국에서 그리스도를 전염시킬 수 있길

7-2구역에 박형기 집사와 뜻을 같이한 몇 분이 매 주일 예배 후 안산에 위치한 외국인 선교 교회인 소금밭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안산공단에서 외국인들을 소금밭교회까지 차량으로 데려오고 예배드리는 것을 돕는 일로 시작하여 일자리 문제,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돕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 관련된 뉴스도 알려주고 있다. 낯선 곳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하여 대화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는 일도 한다.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에는 교회출석인원이 40명 정도였는데 1년 5개월 정도 지난 현재는 약 100명 이상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번 무지개축제에 소금밭교회 100여명 정도의 외국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외국인들 중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야말로 축제라는 것 하나로 즐기러 오는 외국인들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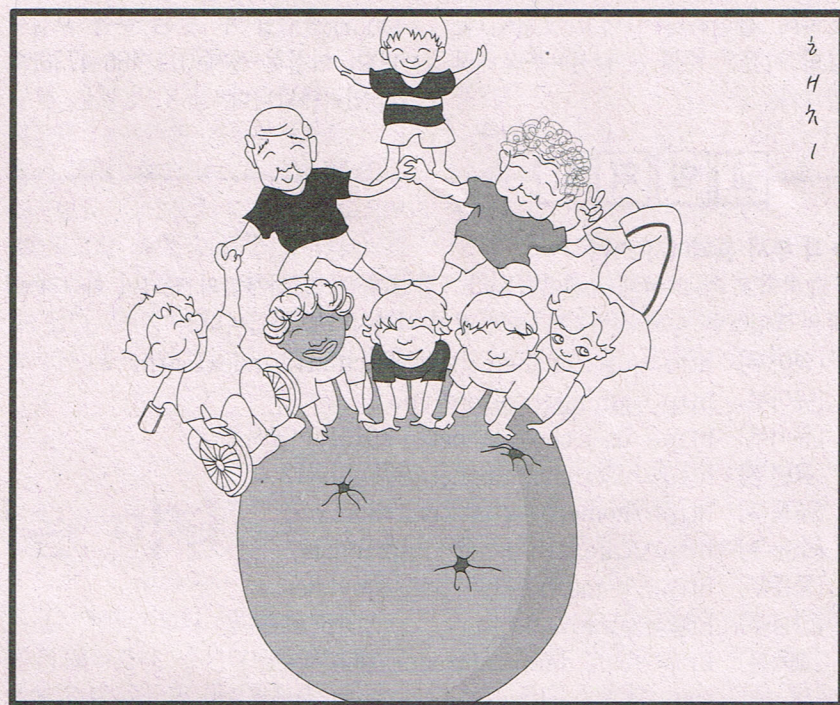
박형기 집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지개 축제장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웃어주고 먼저 악수를 청

하고 친절을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램을 말했다.

우리 모두가 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주어 소외로 인해 닫혀가는 마음을 열고 새로운 일을 이루고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 무지개축제에 참여한 모든 외국인근로자들이 성령충만해져서 고국에서 그리스도를 전염시킬 수 있길 소망해 본다.

/ 백미경 기자



교회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씁시다

‘대표기도’는 ‘기도인도’로

예배순서 가운데 기도시간이 되면 인도자가 “우리를 대표해서 ○○○님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님이 기도하시겠습니까” “○○○님이 대표기도를 하시겠습니까”와 같은 안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못된다.

온 회중이 머리를 숙여 무언의 기도를 할 때 한 사람이 소리내어 기도할 경우 우리는 이를 ‘기도인도’라 부르는 것이 좋다. 기도 인도자는 기도의 대표자가 아니다. 이 기도 인도자는 그와 함께 머리를 숙인 다른 사람들과 분리될 수 없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또는 생각까지도 그들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기도 인도자는 대표로 뽑힌 어느 운동 선수와는 다르다. 그는 대표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며 그와 함께 머리를 숙인 온 회중의 생각, 즉 그들의 소원을 보다 깊게, 보다 하나님 뜻에 맞게 아울러 그 절차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기도 인도자가 기도할 때 회중은 결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람들에게는 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게는 대표성이 인정될 수 없다. 만인제사장의 사상은 하나님 앞에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사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기도예에 있어서 ‘대표’, ‘대신’은 불가하다. 그러므로 ‘대표기도’, ‘대신하여 기도...’는 ‘기도인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독교용어연구회 제공자료)

성지순례시리즈 4

내 가슴의 안디옥 전설...

가치안템을 출발해서 가는 동안 수리아 안디옥(현재 터키의 Antakya 지역)에 대한 고고학 자료들을 들추었다. 셀류키드 1세가 이수스(Issus)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B.C. 300년에 세운 이 도시는 그의 아버지를 기념하여 세운 16개의 안디옥 중에서 가장 컸다. 한 때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의 하나로 꼽혔으며, 도시의 자태가 아름다워 ‘동양의 왕관’으로 불렸다.

다시 성경자료들을 들추었다. 예루살렘에서 스테반의 순교 이후 교회에 핍박이 잇따르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500km 떨어진 안디옥으로 피신하였다. 이렇게 모인 ‘신앙적 난민’들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형성되었고,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이 있었으며, 이윽고 교인들은 최초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베드로와 요한 등이 방문하여 말씀으로 양육하기도 한 그 공동체는 누가, 폴리갑, 크리스소

톰 등과 같이 뛰어난 기독교 영성을 지닌 인물들이 태어나 성장한 자양분이 되었다.

두 시간 남짓 자료들을 읽고 생각에 잠기다 우리가 내린 곳은 ‘안디

옥’ 때, 베드로가 지은 교회라고 전해진다. 현재 남아있는 형태는 십자군들에 의해서 13세기에 건설된 것이며, 지진으로 동굴 앞쪽이 무너져 현재의 모양이 되었다고 동행한 터키 고고학자가 알려주었다.

교회 내부를 살펴보다 왼쪽 구석으로 난 동굴의 작은 입구에 눈이 갔다. 들어가 보니 백열등 아래 희미하게 작고 좁은 돌길이 눈에 보였다.



실피우스 산기슭의 동굴교회(무덤)의 흔적

옥’으로 소박하다 못해 초라한 느낌이 드는 어느 야산의 한 중턱이었다. 영어로 된 간판을 보니 베드로 기념교회(St. Peter's Church)라고 쓰여있다. A.D. 47년과 54년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에 있

화려한 도시의 외진 동굴에서 은밀하게 모임을 갖다가 박해가 시작되면 몰래 빠져나갔던 비밀 통로였다! 4km에서 8km에 이르는 미로를 빠져나가면 실피우스 산 위로 통한다는 말을 들으며 손으로 만져보다 조

금 올라가 보았다. 온 몸을 숙이면서 웅크리고 걸어야 간신히 걸을 수 있는 좁은 돌길이었다. 조금만 있어도 이리 힘이 드는데 환난과 핍박 중에서 평생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초대교회의 비전과 사도 바울의 꿈은 이러한 조그마한 돌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간구와 간절함이 있었을까. 인간의 종교적 허영심이나 문화로 덧칠되지 않은 채, 소박하다 못해 초라한 그 곳을 다시 바라보았다. 조용히 한 편에 숨어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안디옥의 전설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서러운 마음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갑자기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불같은 마음이 일어 그들을 소리 없이 목놓아 불렀다.

마음을 들킬까 몸을 돌려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시내에 온통 자미(이슬람사원)뿐이다. 정오가 다 되어 코란을 읽는 소리가 온 도시에 메아리친다. ‘화석’이 되어 가는 크리스천의 진실이 서러운 내 가슴을 아는지 실루기아(Seleucia)로 향하는 길에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 하화주 집사

교회소식

▶입교, 세례식

입교식 및 세례식이 6월 4일(수) 오후 8시에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문답은 6월 1일(주일) 오후 1시 15분, 2층 중교수련실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의 개편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5월 하순경에 오픈 예정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주소도 www.pcltv.org로 변경된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설교방송 안내

문동학 담임목사의 주일설교를 방영하는 www.cctn.tv(기독교tv)의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www.cts.tv의 '설교방송' 코너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교구소식

▶5월 3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주영숙 집사 댁에서 8-3구역 구역모임이 있었는데 처음 참석한 유재호, 권화일 집사 등과 함께 5월 25일 무지개축제 식사로 불고기파티를 할 것인가, 김밥과 차를 할 것인가 하며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장승수 안수집사 가족(2-6구역, 가족:장길수, 김선례, 나선일,

임채권, 장금옥)의 4월 28일에 있었던 故 장춘근 성도의 상고에 참석 해주신 교우들의 기도와 성원,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청년모임

▶청년1부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1층 자모실에서 있으며, 청년2부 기도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1층 자모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에는 '혼성중창팀' '워십댄스팀' '드라마팀' '시각디자인팀' '문화팀' 등이 있으며, 현재 30~40여명 활동중입니다. 전문강사의 지도하에 활발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모임 시간은 주일 오후 6시부터 8시입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 홈페이지 소개

교회학교 각 부서의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주일 하루만의 만남이 아니라 이 작은 공간들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끈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영아부] <http://user.chollian.net/%7Echild12/index1.htm>
- [유아부] <http://junimschool.org/yua>
- [유치부] [http://user.chollian.net/~k0131jw\(공사중\)](http://user.chollian.net/~k0131jw(공사중))
- [유년부] <http://user.chollian.net/%7Echild12>
- [초등부] <http://home.freechal.com/cdboflord>
- [소년부] <http://cafe.daum.net/junimangels>
- [중등부] <http://home.freechal.com/lcmiddle>
- [고등부] <http://junimschool.org>
- [교육부] <http://cafe.daum.net/educationlovers>

사역자모집

▶결혼사역팀 모집

결혼예식 사역지원팀에서 방송, 음향, 조명, 영상, 안내 등의 봉사할 분을 모집합니다. 박의일 전도사(011-334-4076)에게 연락바랍니다.

▶영상미디어사역자 모집

영상미디어부에서 비디오카메라 촬영 및 사진카메라 촬영으로 봉사할 분을 모집합니다. 이창현 목사(011-466-4736)에게 연락바랍니다.

▶맥킨토시 기능자 모집

함글함글 편집부에서 맥킨토시 및 Quark작업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이창현 목사(011-466-4736)에게 연락바랍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모집

기획부에서 그래픽디자인 작업을 위하여 홍보기획 및 출판업에 종사하는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김원재 목사(019-357-9861)에게 연락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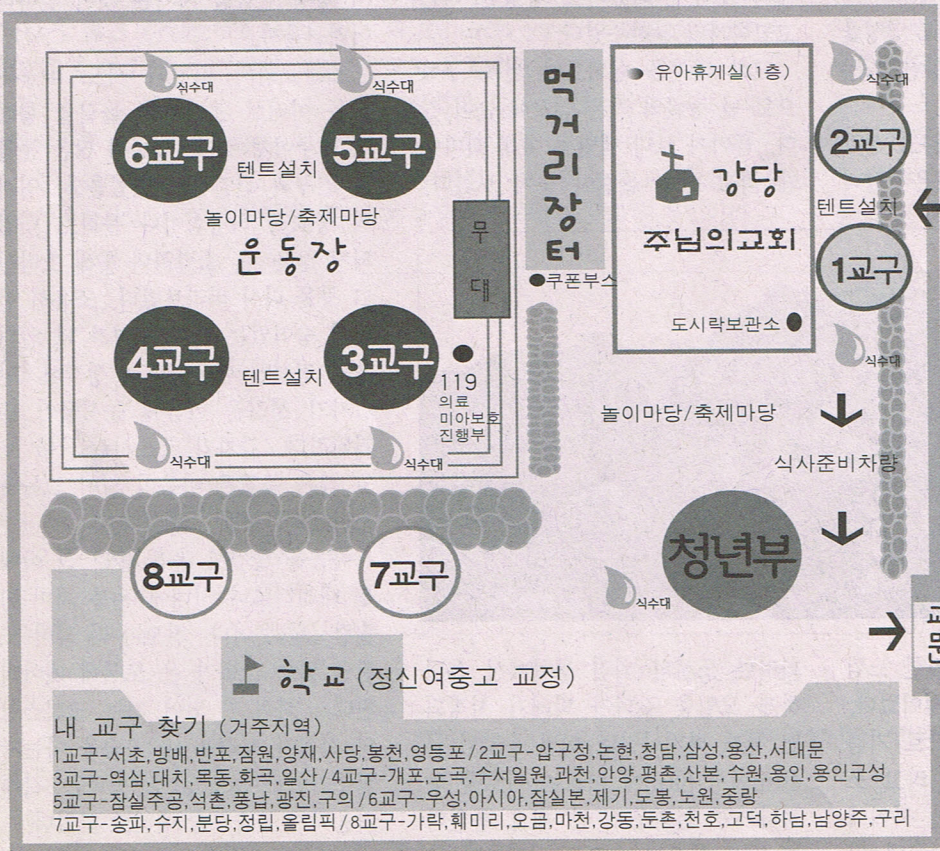
◆주님의교회를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 문동학
 - 부목사
김병모 김성관 김원재 윤덕영 이상훈
이창현 정현희 정희성
 - 전임전도사
김현령 박의일
 - 교육전도사
고승제 김보선 김진경 유상렬 이영란
최인영 추정순 황병기
 - 시무장로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정재경 양동훈
계학용 임동진 김소일 성백술 김경신
한윤경 권오승 문창복 윤화원 전재표
이병식 최창섭 박시만 황기연 김현덕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전화 : 02-416-5181
홈페이지 : www.pcltv.org

◆기사제보안내◆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글함글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핸드폰 : 011-466-4736
▶이메일 : chhylee@korea.com

무지개축제



▲교구별 식사장소

▶주차안내

다음주일에는 장애교우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교내진입이 통제됩니다. 교회주변, 뚝방길, 경기장주차장에 주차바랍니다. 잠실 종합경기장 주차장 진입차량은 남문 앞에서만 오전 7:00~11:00에 교회차량안내위원으로부터 주차권(1일 3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사준비차량은 공원방향 옆문을 이용바랍니다.

▶먹거리장터안내(숫자는 담당교구)

- 1-오뎅, 순대 / 2-떡 / 3-닭꼬치, 핫도그 / 4-아채샐러드, 묵
- 5-해물전, 파전, 냉미숫가루 / 6-만두, 찐빵, 아이스크림
- 7-샌드위치, 커피 / 8-떡볶이, 음료수



▲주차장약도